| 불자 세상보기 |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

사병 종교 강제, 언제까지 하려나

전령 · 골프병, 일종의 군내 사역병
고려 · 조선 관비 · 관노제도와 같아

국가의 합법적 인권유린의 현장
한국전쟁 당시 장군들 행태 기록
아녀자 시중 등 적폐 그대로 전해져

연 20만명 선교 간증 박 대장
종교 자유는 나치독일군도 보장
"군인권 강화, 또 다른 시대과제"

우리 부모들은 매년 20여 만 명의 아들들을 군에 보낸다. 그 아이들이 군복무 중 맞게 되는 임무는 뭉뚱그려서 국토방위이지만 실은 다양한 임무들이 주어진다.

최근 불거진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알려진 관사 공관병도 군의 최하위 계급자인 병사들이 맞게 되는 임무들 중 하나이다.

이 공관병의 임무 말고도 군에서는 온갖 잡다한 사역 성격을 띤 임무들이 병사들에게 주어진다. 병영 내 매점을 관리하는 PX병, 골프장이나 기타 체육시설, 혹은 최상급부대(계룡대)와 전국각지의 휴양소들에 설치된 수영장을 관리하는 병사, 하계휴가기간 군간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임시 운영되는 휴양지나 복지기관, 지역 등의 시설,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병사도 있다. 그런가하면 사실상 편제로 운용되는 소대장 당번병이나 중대장 전령 등 병사들도 역시 넓게 보면 지휘자, 지휘관의 개인적 시중을 드는 사역병의 역할이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누구누구 '따까리' 라고 부르는 바로 그 것 말이다.

국방부 문헌들을 찾아봐도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몇몇 장군들이 남긴 회고록을 통해 지휘관들이 부하나 아랫사람들로부터 시중을 받는 관습과 관례의 행태와 사례들을 엿볼 수 있다.

그나마 반성적 의미를 지닌 회고가 바로 백선엽 장군이 남긴 '6.25 징비록' 이다. '전쟁 중 이동하는 부대 대열에는 이불보따리와 세간을 지닌 젊은 처자가 지휘관들의 지프를 타고 함께 있었다' 는 회고가 그 것이다.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의 정신자세를 탓하고 반성하자는 의미이겠지만 이런 증언으로 보아 우리 군지휘관들이 누군가의 시중을 받는 관습은 마치 수백년간 이어졌던 관노와 관기제도처럼 이어져 왔음이 짐작된다.

그 거부 할 수 없었던 청산되지 못한 비참한 역사의 잔재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 군대의 공관병 제도다. 이토록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청산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어 자행해 온 사람들에게 일제치하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고나면 보도되는 초임여군간부들에 대해 저질러졌다는 고급지휘관들의 성추행 · 성폭행을 근절하자던지, 짐승이나 다름없이 부려지는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들이 그들에게 가당키나 했을지 말이다.

이미 겪었고,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불법임을 알고서도 침묵해 왔거나 묵인해온 부모세대의 무지와 무책임을 자식들이 고스란히 전가되어 자괴감과 모멸감이 든다.

사찰과 성당에서 초코파이 한 개를 주면 교회는 두 개를 줘 병사들을 유인하고, 연간 20만 명을 전도하면 20년 내에 국민 3000만 명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박 대장의 간증도 실로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 모골이 송연하기까지 하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합법적 권한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부하들의 신앙까지 강제하고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겠다는 그의 무지와 폭압적 사고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정도면 이미 종교탄압 수준이다. 무자비한 테러와 살인으로 악명 높은 알카에다나 보코하람, 세상을 혼돈과 죽음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IS 등의 만행이 모두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보다 인권의식이 훨씬 못했던 반세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생명을 앗아간 히틀러 나치 치하의 독일군에서도 군인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허용했었다는 사실을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육군대장 박찬주와 부인은 알고나 있을까.

社說

징용자 유해 봉환 불교계 관심 갖자

일제강점기 일본과 사할린 등으로 강제동원 돼 노역을 치르다 비극적으로 숨진 무연고 선조들의 유해가 수십여 년 만에 국내로 봉환됐다. 비록 유해는 33구뿐이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

유해 봉환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된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데는 그동안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 29개 불교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관음종 등은 일본 죠세이 탄광서 희생된 선조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올렸으며, 천태종 무원 스님이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할린에 강제이주 희생자 추모관 등을 기공했다.

불교계가 이처럼 이역만리 타국에서 외로움과 노역에 지쳐 쓰러져간 선조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타종교계서 볼 수 없는 불교만의 전통의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무원 스님은 '영혼불사' 라고 칭하며 불교계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하지만 유해 봉환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국평사에 있는 유해 중 33구만 먼저 봉환해온 것도 소요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음 봉환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해 봉환을 정부가 맡을 시 일본과의 대외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일본 내 사찰에 보관 중인 유해가 많아 불교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불교계에 던져진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다.

광복으로부터 어느덧 72년이 흘렀다. 연고조차 없는 선조들의 한을 풀기 위해 불교계가 지금이라도 나선다면 사회로부터 조금 더 신뢰받는 종교가 되리라.

조계종, 공명선거가 절실하다

오는 10월 12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열린다. 선거가 2달여 남은 현재 종단 주요 스님들이 하마평부터 루머, 잡음들까지 벌써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종단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선제와 직선제라는 첨예함은 좀처럼 좁혀지진 않는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종법을 지키는 것이다. 당장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잘 치룰 준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명선거위원단' 이 발족한다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9일 결의한 공명선거위원단은 오는 8월 31일 공식적으로 발족한다.

위원단 구성은 18일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이뤄진다. 발족식에서는 합동워크숍을 통해 선거관리에 따른 업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현 집행부는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젊은 불자들이, 지성인 불자들이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비위와 내홍 때문이다.

누구 탓을 할 것인가. 종단 사부대중 구성원 모두가 원인 제공자이다. 이번 선거는 폭로와 인신공격, 비위가 없는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속(俗)이 성(聖)을 걱정하는 일이 반복돼야겠는가. 공명선거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불자 올림픽 선수 사찰결연 시작을

체육인불자회가 8월 5일 평창 월정사에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템플스테이에서의 일이다. 이날 자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 입재식 이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입재식 후 30여 명에 달한 선수들 대부분이 이후 프로그램을 소화하지 않고, 가버린 것이었다. 휑하게 비어 버린 법당에서 2명의 동계 종목 선수들과 볼링 선수들이 남아 명상을 진행했다.

명상을 지도하는 스님도, 멀리 제주도와 전남 등지에서 올라온 선배 불자 체육인들도 당황한 눈치였다.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열린 선전기원법회이기에 바쁜 훈련 일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부랴부랴 뒤따라 나와 선수들에게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팀 이동이어서 함께 왔다' 는 것이었다.

취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월정사에서 나오는 길에 체육인불자회 관계자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 선수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불자거나 혹은 감독, 코치가 불자여서 불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불자로 분류가 되지만 비불자인 경우도 많다고 했다. 매일 고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사찰을 쉽게 찾을 수 없기에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사찰로 찾기 어려운 이들이니, 불교계에서 얼마만큼 이들에게 찾아가는 전법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대화를 나눈 관계자는 기독교계에서는 신도들이 신자 선수 후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바쁜 훈련 중에도 자연스럽게 교회 행사 등에 참가하게 되고,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자신의 종교성을 과감하게 보이는 원동력이라 생각됐다.

불교계는 현재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부분이 올림픽을 위한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곳에서 뛰는 선수나, 선수가족을 위한 준비는 부족하다.

태릉선수촌에서 지도법사 스님이 수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선수들은 인기, 비인기 종목을 벗어나 스포츠 분야에서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포교사다.

체육인전법단에서 이들을 위해, 특히 비인기종목 불자선수들을 위해 꿈나무 장학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종단과 전법단에 일임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재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불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전법단 스님이나 종단 소임의 스님에게 일임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담당하는 지도법사 스님은 사찰에서 체육인 불자유망주 1명씩만 맡아준다면 스포츠 포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9월 1일 국가대표 선수촌은 태릉시대를 마무리하고 진천시대를 연다. 이에 발맞춰 종단도 진천선수촌에 새로운 법당을 지을 예정이다. 체육인전법단은 진천 중심의 스님들을 위주로 지도법사단을 구성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불법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만큼, 사람을 향하는 부처님의 향기가 불자선수와 사찰의 결연 사업을 통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